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 2020. 11. 09(월) 08:30 - 17:00
-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모시는 글

코로나19 와중에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대공황 이래 가장 큰 충격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 여파로 이미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의 키워드는 ‘효율성’ 극대화에서 ‘복원력’ 강화로 바뀌고 있고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도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 경영체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 투자의 촉진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경제연구원(IGE)이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주제로 오는 11월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 드리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국제행사의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펠스 NYU 석좌교수, 미래정치학계 세계적 권위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미국 국무부 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를 비롯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그룹 회장,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 피유시 굽타 DBS 그룹 CEO, 스위스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총재, 헤니 샌더 파이내셜타임스(FT) 수석칼럼니스트 등 국제금융계 리더들과 국내에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기조연설(TBC)에 이어, 국회의원 양이원영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그리고 학계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직접 또는 온라인(비디오)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컨퍼런스 모임에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